

교회소식

오늘은 감리교회에서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사대학이 오후 3시부터 청파교회에서 열립니다.

10월 16일 11시 불광동 팀수양관에서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는 교회에서 9시에 있음) 오후 4시까지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32회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가 27일(화)에 있습니다.

: 곳곳에 가을꽃들이 한창입니다. 모르는 꽃 이름을 배워봅시다.

마태복음 9:9~13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추헌영 집사

9월	1부 영접위원	1부 헌금위원	2부 영접위원	2부 헌금위원
	홍성식 이유리	권미정	하현철 송동준 강세기 한상균 이소애 정경례 한양미	김정민 안홍숙

오늘 식당 봉사 : 찬양대
 다음 주 식당봉사 : 최경미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김명희 박명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4여선교회(51-55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46-50세)
 커피 판매 봉사 : 1여선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창조절 제4주】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3.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십시오. 새로운 세상 꿈꾸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게나마 자신의 손으로 그런 세상을 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사회가 청년들을 향해 청년답게 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회 속에 바름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청년정신이 있는 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또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도 다시 일상을 일구어가는 그들의 손길을 지켜주십시오. 정부 당국이 좀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렘29:13,14a 인도자

♣ 교 독 문 97. 청년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김용민 청년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575. 주님께 귀한 것 드러 다 함께

♣ 성경봉독 미 3:8-12 I. 인도자
II. 안승현 청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내가 매일 기쁘게 참빛찬양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기성	이은정	김 린	김명화	오형일	김문주	김애순	김영호	김용진	박효선
김재흥	최희영	김정린	김종현	성귀옥	김준호	곽혜자	김철수	유영남	김현동
오유경	김현주	노성희	김만균	류건형	이주은	박예림	송동준	김진경	김상숙
윤성종	김윤정	은종인	이부곤	이유진	이응석	이은경	이재은	이주경	안상숙
이준림	임고운	오재형	임선양	신현숙	임승동	백혜숙	장동훈	정은선	정현숙
최 숙	최 현	하현철	최성애	한완식	임정자	허호범	박성실	무명	

감사헌금

곽정자	김금순	김대성	김성순	김용진	박효선	김해선	김향자	박순섭	권미숙
박재영	이현정	박창운	허정윤	변승호	심프슨	여성국	오승아	이범석	류정욱
이수자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이정은	최승민	추은총	한중윤	무명18	

녹색꿈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임설희 장영숙 전진태 정연경 무명3

생일감사헌금

박유진 설재희 이순이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 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약속 따라서 그 나라를 여네

주 안에선 선민이 없네
주 안에선 이방인도 없네
노예나 주인도
남자도 여자도 없네
주 안에선

주 안에선 높은 자 없네
주 안에선 낮은 이 없네
강자나 약자도
부자나 가난한자 없네
주 안에선

- 이지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뻐하므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말씀	꾸짖을 용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청년부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불의와 부정을 기반으로 삼고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저항하며 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꾸짖으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함께:	아멘.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보면서도 맞서 저항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조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주님의 영을 따라 살겠습니다. 정의와 바름 위에 너와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믿음으로 읽는 글

영원히 청년의 영으로

... 사는 동안 나이와 상관없이 젊고 싶은 것은 내 영이고 내 신앙이고 삶을 살아가는 내 자세이다. 나는 이것을 김교신을 비롯한 무교회 신앙인들에게서 배웠다. 김교신의 「성서조선」 동인이었던 함석헌은 무교회 정신을 “영원히 청년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부른 바 있다. 김교신도 이에 동의했다. 어느 날, 종교를 논평하는 이가 “기독교는 청년에게(나) 적당하다”고 (그 함의인즉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이고 지식이 깊어지면 떠날 종교라고) 논한 글을 접하고서 김교신은 다음과 같이 썼다.

“혹은 그럴지도 모른다. 사람이 한번 노쇠하여 버리면 다시 기독교에 돌아올 수 없다 함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기독교는 특히 ‘청년의 종교’ 라는 사실이다. 이해에 담박하고 정의에 용약함은 이것이 청년의 녀이요, 인습을 물리치고 진리에 취하며 허위를 깨뜨리고 실질을 취하려 함은 청년의 의기요, 과거의 경험 속에 지구(기름 찌꺼기)로써 신경을 은폐치 않고 예기발랄한 감수성으로 진위허실을 판별하는 것이 청년기의 본능이 아닌가.”

기독교의 본질이 ‘영원히 젊으려는 정신’이라면 돌아볼 일이다. 김교신의 시대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현재의 기독교는 과연 ‘청년성’을 가지고 있는가? 비평하기 좋아하는 외부인의 눈으로 볼 때나 신앙인의 본질이 ‘청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볼 때도, 오늘의 기독교는 여전히 젊은가? 한 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늙으매’ 그 아들들의 부당하고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제지하지 못하지 않았던가? 대부분의 사사들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며 말씀을 ‘말아’ 예언預言을 했었는데 그가 아직 사사이던 시절에 여호와께서는 엘리에게 말을 그치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았던가? 엘리 가문의 ‘영적 노쇠함’을 경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용감하게

전했던 ‘어린’ 사무엘은 이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을 만큼 여호와와 영과 함께 했었다는데, 그 역시 ‘늙으매’ 모자라기 짝이 없는 자신의 두 아들을 ‘관습’처럼 대를 이어 사사로 삼는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던가?

그리고 보면 성서는 끊임없이 이 ‘영적 노쇠함’을 경고하고 있는 텍스트이지 싶다. ...

“기독교가 청년의 종교인 동시에 기독교는 청년으로 하여금 영원히 청년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사실이다. 진실로 기독교 신자일진대 저는 비록 고회를 넘을지라도 오히려 청년일 것이다. ... 우리는 초국 현인 노래자가 70에 오히려 오채의五彩依를 입고 친전親前에서 영아 희嬰兒戲를 떨었던 것처럼, 크리스천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청년일 것이다.”

우리가 자라 세상만사에 익숙한들, 세상 지식에 성숙한들, 하여 고회에 이른 현자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른’이라 자타가 공인하는 존재가 된들, 하나님 앞에서야 어찌 ‘어른’행세를 할 수 있겠는가? 노래자가 색동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서 재롱을 부렸듯이, 하나님 앞에 매순간 서야하는 신앙인에게 ‘영적 노쇠함’은 불효요 불신앙이다. 하여 기독교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 영원히 젊을 수밖에, 영원히 ‘청년성’을 가지는 수밖에, 하여 청년의 특성인 담백함과 용감함과 진리를 추구함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세상의 ‘노쇠함’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내는 수밖에...

한국 기독교를 다시 팔팔한 젊은 정신으로 살려낼 임계점은 이미 지났다는 비판적인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이다. 현재 드러나는 현상만으로는 부인하기 힘든 정황이다. 그러나 김교신의 외침으로부터 80년이나 지나서, 이 늦은 시점에도 소망을 담아 사랑을 담아 다시 외치고 싶다. 기독교는 청년의 종교다. 영원히 젊으려는 종교다. 인간의 것들을 절대화하고 영속화하려는 그 모든 교만과 탐심과 자만에 “영원히 저항하는 정신”이다. 그러니 기독교인이여 늙지 말자, 젊자, 영원히 ‘청년성’을 가지자!

- 백소영, 「버리지 마라 생명이다」 (꽃자리) 중에서